

2014.12.14.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 현장복음메시지 12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1:1-6

정윤돈 목사님

전도운동의 key가 말씀운동이다.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포럼하니까 즐거워야 한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교회의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현장복음메시지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하는 메시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닌가? 나는 매일 이것을 두고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서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영적인 것이 뭔가? 영혼 이야기인가? 애매하지 않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다.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했다. “달은 어떻게 해서 생겼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 나왔어?” “우주에서요.” “우주는 어디에서 나왔나?” “스스로요.” 결국 스스로 있다는 것은 믿음이다. 과학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믿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과학 역시 실험실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영적인 것이다. 천사도 마귀도 천국도 우주도 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 오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한다.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결국은 믿어야 한다. 영원히 사는 것도 믿어야 한다. 천국에 우주선을 타고 다녀올 수 없다. 믿음이다. 천국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고 있다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비과학적이다. 결국 믿음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결국 믿음의 문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더 많다. 그런데 그 증거를 아무리 가지고 와도 안 믿겠다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렇다.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믿는다 하면 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세계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성적, 육신적 존재로서 오감을 가지고 체험해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 보지 않은 곳도 다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다. 과학자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설득해도 여러분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IQ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는 세상 이해가 아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머리다. 영적인 것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 5만 번 10만 번 응답받을 수 있다. 원자폭탄보다 몇 배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영적인 역사다. 이 축복을 생애 한 번은 체험해야 하지 않겠나. 기도하는데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다는 것

을 체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미 응답이 많이 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너무 커서 작은 응답은 응답으로 생각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작은 응답 하나하나를 두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2)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육신적인 것은 기본이다.

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어제도 우리 램넌트를 만나고 왔는데, 수능 보고 와서 많이 틀렸다고 했다. 몇 개 틀렸냐 했더니 서너 개를 틀렸다고 한다.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웃음) 평소 모의고사 쳤을 때는 두 번이나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이라서 일부러 들어가고 비결을 물어봤다. 스톱워치를 맞추고 공부했다는 것이다. ‘아, 저 아이가 우리 자식이었어야 하는데.’ (웃음) 성공하는 사람,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한다.

② 전문성이다. 공부는 1% 안에 못 들어가도, 돈 버는 것은 1등 못 해도, 전도는 1% 안에 들어가도록, 세계 1등이 되도록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때부터 문이 열린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전문성, 일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응답이다.

③ 나이나 환경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평생 교육 시대다. 나의 업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④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에는 너무 어리석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믿음도 없고 삶도 안 된다. 인간관계도 안 된다. 마음 그릇도 넓지 않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영으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허상이 아닌 실상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비전이 사실화되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란다.

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요나단, 다윗의 기준이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 배우는 것도 다 수용해야 한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경험과 한계에 잡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주로 내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끊어 버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난다. 책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니까 흐름을 몰라서 그렇다. 늘 배워야 한다. 인간관계는 그러면서 항상 초월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이고 노예다. 성도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노예나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나. 무슨 주장이 있나.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다. 순종 뿐이다. 열심히 했는데 공로가 있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다 해 놓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다. 그게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 그렇다고 해도, 정신 자세는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겸손하게.

1.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

(1)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것이다. 전쟁하느라고 육신 세계에서만 바빴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든가, 천사가 동원되어 보호하신다든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2) 원죄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고은이와 대화를 해 봤는데, 예술작품 세계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귀신 놀음으로 간다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이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지 않나? 하나님 없이 예술로 깊이 가면 결국 악령 쪽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자신도 가정도 문화도 예술도 다 거룩해지는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더러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고통과 타락 쪽으로 가게 된다. “목사님, 세상에는 두 개 밖에 없잖아요. 성령 아니면 악령요.” 예술

을 하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바로 악령쪽으로 간다. 이번에 서울시향 놓고 분쟁하는 것을 보라.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분열되고 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 영적인 것이다.

(3) 구원의 유일성을 몰랐다. 복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창3:15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복음을 잘 이해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한나도 기름 부은 자를 알고 있었지 않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국가를 구원할 육신적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역사가 달라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천명이다.

2.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나?

- (1)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종교로,
- (2) 선민사상에 빠져서 율법으로 간다.
- (3) 우상숭배로 간다.
- (4) 사명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다.

3. 결국 어떻게 되는가?

- (1)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요셉은 본인은 홀랑했지만 제자는 세우지 못했다. 결국 노예가 되었다. 다니엘은 달랐다. 자기 친구들을 다 제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리했다. 다니엘 때문에 포로 이후시대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요셉은 자기는 홀랑했다. 나만 믿음있고 홀랑하면 430년 종살이가 오게 되는 것이다.
- (2) 블레셋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 (3) 앗수르에게 이스라엘이,
- (4)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고통이 다가온다.
- (5) 로마에 속국이 된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으로 결론을 안 내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강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애굽이 지금도 있다. 바벨론, 앗수르, 로마가 지금도 있다. 정복해야 할 현장이 다 있다. 완전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된다.

4. 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소중한 현장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 램넌트를 키우면서,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 (2) 그러면 개인, 가정, 민족, 세계의 재앙을 막게 된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 (3) 사단은 흑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세상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결론

말씀은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능력, 믿음의 힘이 성경 속에 다 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결단하면 여러분 100여 명 때문에 지교회 100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40일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 결단하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와서 교역자들과 의논해서 말씀운동의 깃발을 꽂아라. 그래서 우리가 속히 1천 제자,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배운 말씀을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한다.